

# 문경시,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도전

신한국 문경시장, 대한민국 넘어 세계 속 '스포츠 도시' 문경 건설

문경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2031년 대회 유치를 위해 나선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국군체육부대라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문경에서, 인종과 종교, 국가와 성별을 뛰어넘어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축제인 2031 세계군인체육대

회를 반드시 유치,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의 스포츠 도시 문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27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국방부와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7월에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 유치'에 관해 방문 건의했다.

국군체육부대(CISM)에서 주관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세계 4대

국제스포츠대회로 꼽힌다.

4년을 주기로 열린다.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문경시가 개최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는 6회로 총 117개국이 참가했다.

현재 2027년 대회 개최지가 남아공과 미국 중 선정을 남겨두고 있다.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가 국제규격 24개 종목의 최신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이미 2015년 종합대회와 2024년 단일

종목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시설과 노하우를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경시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한마당과 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내년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새달 중으로 2031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받는다. 내년 3월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한다. 송명주 기자



## 예천군, 1주일간 양궁대회 개최...

예천군은 23일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추계 생활체육 양궁대회'를 29일까지 일주일간 연다.

종합선수권대회는 올해 국내 양궁을 총결산하는 자리로 23~26일까지 선수·임원 등 350명이 참가해 리커브, 컴파운드 등 2종목을 겨룬다.

27~28일은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진행, 남녀 204명이 참가해 리커브 종목에서 128명, 컴파운드 종목에서 32명을 선발한다.

29일은 양궁 동호인들의 축제인 '추계 생활체육 양궁대회'가 선수와 임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예천군 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성 공룡마을이라는 오명관광역행사 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체장 일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의 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오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예산편성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경북, 건물 내진설계를 전국 '꼴찌'

2019~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 총 287건 발생 경북 68건 압도적으로 많아

내진설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 지진이 압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의 비율이 전국 1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1.3%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2.5%, 부산 12.6%, 경남 13.0%, 강원 13.9%, 전북 14.3%, 충북 15.7%, 대구 15.8%, 충남 15.9%, 광주 19.2%, 제주 19.6%, 대전 20.6%, 서울 20.9%, 인천 21.4%, 울산 22.6%, 세종 25.0%, 경기 26.6% 순이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확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내진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287건이 발생했다. 경북이 68건, 전남이 6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원 31건, 제주 22건, 인천 20건, 경남 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내진설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남과 경북에서만 국내 지진의 46.3%인 133건이 집중됐다. 전남은 공공건축물 내진 확률도 1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전남과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강원, 전북 등 내진설계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며 "지진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준 확대 전 지어진 건축물들도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기자

## 홍준표, 윤 대통령 독대 요청한 한동훈 맹비난

권력자에 기대 정치하지 말고 당원 국민들에 기대 정치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또 한번 맹폭을 가했다.

한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獨對)를 요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공격

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거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독대가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 정치하라"며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덧붙였다. 황태용 기자

## 대구시,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식 "연내 결정"

민관 공동 SPC, 공적자금 투입 공영개발 등 다양한 방식 추진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까지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민관 공동 SPC(특수 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 건설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민관 공동 SPC 사업 방식 외에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비교 검토했다.

민·관 공동 SPC 개발 방식은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비 전액 민간 PF조달로 인해 금융 이자가 14조800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SPC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은 개정 중인 TK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먼저 반영하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해 공적자금(8조5000억원)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시 공영개발은 정부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10조3000억원)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

24일 마감 예정인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자 모집 공모'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롯데건설, HS화성, 서한, 태왕이앤씨)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사업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어서 금융기관의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계획서 대신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가능한 모든 사업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 등 시·도민합의 협의를 거쳐 가장 최적의 사업 방식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당초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최대 민공합동 통합 이전사업인 TK신공항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주요안점을 두고 최적 방안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2030년 신공항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경북도의회 하반기 슬로건

경북도의회는 제12대 하반기 의정활동의 슬로건을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2대 하반기 의회를 상징하는 새로운 슬로건은 앞으로 모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도민 전체의 목소리가 도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경북도의회의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의 전 지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경북도의회의 결의를 함께 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슬로건은 의정활동의 최우선에 도민들의 뜻을 두겠다는 경북도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며 "슬로건에 담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구호는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경북도의회 입구 간판, 공문서, 간행물, 의정 영상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김성용 기자

## 달성군 산단 인근 발암물질 기준 초과

달성군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을 대상으로 벤젠 등 유해 물질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구시의회의 연구용역 의뢰 조사

연구보고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4곳에서 할렘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극적 냄새가 강한 악취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된 결과 기준치(50~100µg/m³) 대비 50~75% 범위로 나타났다.

테크노폴리스 산단의 영향권인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측정 결과 오전 10시~낮 12시 사이 벤젠은 5.25µg/m³로 기준치(6µg/m³)를 초과했다. 조여은 기자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2

## 남구 대명 6동, 취약 어르신 도시락 전달

대구 남구 대명6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 기획단 티키타카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청소년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6

가정을 찾아가 비건 도시락 세트를 전달했다. 남구 대명6동 청소년 기획단 티키타카 청소년들은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환경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을 내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운영한다.

9월 활동은 추석에 홀로 지내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추진위원들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해주시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환경까지 생각하는 비건 도시락 세트를 만들어 전달했다.



# 달성군 아동 특별활동 비용 전액 무상 진행

형평성있는 특별활동 제공  
24개월 이상 아이들 지원  
4500여명 아이들 혜택 기대

달성군은 다음 달부터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이 형평성 있게 양질의 특별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면 진행한다.

특별활동이란 영어, 체육, 음악, 전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집의 보육사업 중 하나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자부담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이로 인해 특별활동에서부터 오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8억 1000만원 정도를 이반 2차 추경에 요청, 필요한 비용을 군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24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수준 높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평하게 제공되는 특별활동의 기회는 원아들의 전이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 시행으로 달성군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45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달성군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로 연간 납부하고 있던 22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를 시작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방침 아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집에 영어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영 어교사 전담배치 사업 ▷유보통합을 위한 대구 시교육청 협업 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 숲밭놀이 체험 운영 등과 함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 토크콘서트 및 영유아 대축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굵직굵직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달성군은 이번 특별활동비 무상 지원 사업 실시로 전국 최고의 교육·보육 특화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영유아를 위한 정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초석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재능을 찾고 꿈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달서구 29일 제18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

7000명 참가자 모집 완료  
육상연맹 공인코스 인기

대구 달서구가 오는 29일 서서산업단지 내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지역 주민과 함께 제18회 달서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2007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는 달서하프마라톤은 매년 아름다운 코스와 원활한 대회운영, 대한육상연맹 공인코스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7000명을 목표로 참가자 모집 활동을 벌였다.

폭발적인 인기로 조기에 목표인원이 초과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당초 예정일보다 20일 앞당겨 7월 31일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작년 대비 726명이 늘어난 총 8,633명(하프 2,590/10km 3,455/5km 2,588)이 신청해 역대급 신청자가 참여한다.

명실공히 전국 하프마라톤을 대표하는 대회로 펼쳐질 예정이다.

작년 대비 5km 818명이 줄고 하프가 1,299명, 10km 355명이 증가해 전국 마라톤 마니아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대회 종목은 하프와 10km, 5km 3개 종목이며, 하프 종목은 4개부(청년부, 장년1부, 장년2부, 여자부), 10km 종목은 3개부(청년부, 장년부, 여자부)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며, 종목별로 1-5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을, 6-10위 선수에게는 상금을 지급하고, 5km 종목은 순위 경쟁 없이 즐기며 달릴 수 있는 건강달리기로 진행된다.

단체 참가 10개팀을 하프와 10km 함께 접수 인원으로 순위를 결정해 트로피와 상금을 지급한다.

하프 코스의 경우 강변도로를 따라 강창교에서 1차 반환, 태경산업에서 2차 반환하는 코스를 2바퀴 달리는 루프 코스로 구성했다.

10km 코스도 강변도로를 따라 강창교에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5km 코스는 기존의 대명유수지 생태탐방로와 달성습지를 달리는 코스로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고 달리기 좋은 코스로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시작 시간은 9시 정각 하프, 9시 10분에 10km, 9시 20분에 5km 종목이 출발하고, 8시부터 대회장에서는 풍물놀이와 태권도 시범, 댄스 공연 등 식전행사가 진행되며 8시 30분에 개회식이 시작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갈가의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계절 9월에 대구 도심의 하파인 달성습지와 아름다운 금호강변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호림강나루공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수성구 제5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최우수상'

문화공약·정책개발 사항 점검  
예술 접근성 등 7개 분야 평가



수성구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주관한 '제5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에 시작된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과 정책개발 및 이행 사항을 평가하고, 우수 문화정책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문화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열리는 시상식이다.

민선8기 지자체 문화정책 사업을 △지역아이

덴티티강화 △참여와소통 △다양성과포용 △교육교양증진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환경친화성 △문화사업의 경제영향 △문화예술의 접근성 등 핵심가치 7개 분야 지표로 평가했다.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 결과, 수성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수성구는 특히 민선8기 주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주민 교육과 교양증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성빛예술제, 수성꽃페스티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 마을정원사를 양성해 우리 동네를 직접 가꾸는 도심 속정원 조성사업 등 수성구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친 점이 주목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평가 우수상 수상 이후, 미래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 추진한 민선 8기 문화사업이 올해 최우수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문화 콘텐트를 개발해 수성구를 품격높은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군위 '의흥 어슬렁길 골목축제' 성황리 마쳐

레트로 먹거리 장터 운영  
향교~전통시장 일원 개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의흥상가변영회가 함께한 흥(興)미(味)로운 골목이야기2024 의흥어슬렁길 골목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2일 3일간 의흥면 읍내길 일원(의흥향교~의흥전통시장)에서 열린 어슬렁길 골목축제로 조종했던 골목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의흥향교에서 진행된 선비문화 체험과 어린이 과거시험은 참여자 사전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의흥전통시장과 연계한 '레트로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의흥의 대표 먹거리인 닭도리탕과 불고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의흥전통시장 내 공연 무대를 마련해 퓨전 국

악그룹 이어방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가수 공연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즉석 노래방으로 축제의 흥을 돋웠다.

플리마켓 부스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각종 농산물 판매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축제의 주무대가 된 의흥향교와 의흥전통시장 외에도 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 스탬프 투어와 대구 유명 캐리커처 작가인 산티가 그려주는 우리 가족캐리커처는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의흥상가변영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경품으로 내놓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의흥어슬렁길 골목축제'로 잊혀져가는 골목 상권에 활기를 되찾고 지역의 특색있는 골목 상권으로 성장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골목상권 상인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해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 만큼 지역 상인들의 역할이 많이 커지고 결속력도 강해진 것 같다"며 "이번 어슬렁길 골목축제를 시작으로 의흥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축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삼국유사테마파크(의흥면 이자리)와 골목상권 내 제휴 상점 상방문 시 할인 혜택 이벤트는 24년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박재성 기자

## 2024년 Dalseo 글로벌 잡페어 연다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 지원  
전문가 특강·컨설팅 등 제공

대구 달서구가 11월 8일 달서구청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센터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 Dalseo 글로벌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실제 채용면접과 해외취업 전문가 특강, 그 밖에 맞춤형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지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기업 채용면접부스는 일본기업 토요코인, ㈜아이제이글로벌, 말레이시아기업 TDCX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구직자와 실제 채용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외취업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취업 동향을 분석하고,

취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등 개인 맞춤형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해 실제 면접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4년 Dalseo 글로벌잡페어 참가는 11월 5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용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전형은 통해 채용 면접 대상자를 선발해 11월 4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2024년 Dalseo 글로벌잡페어를 통해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커리어의 첫 발을 내딛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동구청,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동구청은 23-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100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 일

자리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하게 된다.

동구는 '내 일(Job)이 더 기대되는 동구'라는 주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홍보 △일자리 지원센터 및 청년센터 소개 △

혁신도시 우수 제품전시 △취업지원 이도상담실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관객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3

## 경북 '음주운전사고·사망' 줄지만...취중질주 하루에 14건

경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 이 사실은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분석에서 확인됐다. 분석결과 2021년 912건 발생 23명 사망, 2022년 849건 20명 사망, 지난해 707건 17명 사망, 올해는 1~8월까지 370건 발생,

6명이 숨졌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경북도내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315명이다.



# 2024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성료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가 화합하는 지역 축제의 장 열여

'2024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가 막내렸다. 대회는 지난 22일 봉화공설운동장 일대에서 2,500여 명의 참가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는 △하프(Half) △10km △5km △팀 대항(하프, 10km) 등 다양한 코스로 진행됐다.

주최 측 대표를 비롯해 박현국 봉화군수, 임중득 국회의원, 권영준 군의회 의장, 박창욱 도의원, 김주현 봉화경찰서장, 김장수 봉화소방서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빈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가을비가 내린 이후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마라톤 주로를 따라 만개한 코스모스길의 풍경은 대회에 참여한 마라토너와 가족 단위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자아냈다.

봉화 한약우를 활용한 소불고기과 뽕튀기, 잔

치국수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먹을거리와 야와 샤워부스, 스포츠데이팅 부스 운영 등 쾌적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참가자들의 안전과 대회 간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대회관계자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동원해 합동운영본부 운영, 마라톤 코스 차량 통제, 주차관리, 의무실 설치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정정순속도시 봉화를 찾아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마라톤 동호인들이 더 멋진 환경에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늘 함께 달리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다.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봉화의 자연, 넉넉함과 봉화송이향을 느끼며 즐겁게 달리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전성기 기자



## 2025 APEC 개최지 경북, 캐나다서 맹위 떨쳐

경북 전통의 멋 으로 역사·문화 중심지 경북관광 홍보 눈길끌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2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4 한국문화관광대전'을 통해 경북관광 홍보와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는 '2024~2025 한-캐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한국과 캐나다 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및 증편과 함께 캐나다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경북도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가했다.

경북 홍보부스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Nathan Phillips Square)에 'The Heartbeat of Korea/Gyeongsangbuk-do'라는 주제로 설치됐다.

부스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전통과 자연 등 권역별로 경북관광을 소개하는 관광콘텐츠를 전시했고 이틀간 5만 명 이상의 토론토 시민이 방문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한복을 입은 종사자들이 경북나드리 SNS 팔

로우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에게 경북 명소가 새겨진 손거울과 책갈피를 제공하며 인기 관광지를 알렸고, 외래관광객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첫날인 9월 20일에 현지 대형 여행사와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국관광설명회를 겸한 트래블 마트를 개최했다.

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북이 '2025 APEC 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임을 설명했다.

캐나다 여행사에서도 인천공항에서의 이동거리, 숙박 시설,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일부 여행사는 템플스테이, 유네스코 역사 마을 체험 등의 관광 상품 판매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토론토 한국문화관광대전은 경상북도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며 경상북도가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고령은 세계유산 도시 한국 5번째 고도 지정 도시

'2024 세계유산축전-고령지산동고분군' 개막

'2024 세계유산축전-고령 지산동 고분군' 개막식이 23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2024 세계유산축전'은 지산동 고분군 내 최대 규모 고분인 금립왕릉(5호분) 발굴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와 함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4일간 펼쳐진다.

이철우 경북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그리고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등 주요 내빈과 800여 명의 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총 4건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축전 행사로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대에서 펼쳐진다.

'잊혀진 가야 문명, 가야 고분군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전은 크게 가치 향유 프로그램(5종)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5종)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설로 열리는 △빛의 대가야 프로젝트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기 △내가 쓰는 대가야사 등을 비롯, 주말에 집중 편성된 △고령으로 가요! 토크콘서트 △대가야의 향연 △가야금 대명창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야간에도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축전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부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고



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4 세계유산축전 누리집(https://worldheritage.modoo.at/)에서 축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세계유산 도시이자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된 고령은 머지않은 달빛 철도 시대에 산업문명의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경북도 차원에서 대가야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대구·경북 장애 학생들 너무 장하다...

2024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서 큰 성과

대구·경북학생들이 2024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행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데케이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은 넷미블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게임의 긍정적 기능성을 활용해 장애 학생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23일 '2024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화경진대회 18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5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에서 △최우수 4명 △우수 7명 △장려 9명 △페어플레이 1명 등 총 21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엑셀 종목에서 광명학교 한효원(고2) 학생의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우수상 7명, 장려상 7명 등 10개 종목에서 총 15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오델로 종목에서 광명학교 최소연(고1) 학생 △

하스톤 종목에서 영화학교 박준형(고3) 학생 △ FC온라인 종목에서 이룸고 김세용(고1)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2명의 학생이 장려상, 1명의 학생이 페어플레이상 등 6개 종목에서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하스톤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학교 박준형(고3) 학생은 "우승을 향한 도전에 성공하여 정말 기쁘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고교 졸업 후 미래를 위한 도전도 꼭 성공하겠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매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노력과 인내를 배우고 선의의 경쟁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경북 대표로 출전한 22명의 학생은 대회 17개 종목(정보경진대회 10명, e스포츠대회 12명)에 출전해 최우수 6명과 우수 4명, 장려 2명, 페어플레이 2명 등 총 14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0개 종목에 출전한 정보경진대회에서는 아래 한글과 스마트검색, 로봇코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퍼워드포인트 부문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7개 종목에 출전한 e스포츠대회에서는 풀가이즈와 클래식로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팀



파이트팩티스와 FC온라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스위치 볼링 부문에서 장려상, 닌텐도 스위치 배구 부문에서는 페어플레이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팀을 이뤄 출전한 클래식로얄과 팀파이트팩티스, FC온라인 종목에서 거둔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장애인식 개선과 협력·공감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국립특수교육원장상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임중식 교육감은 "대회를 준비하며 노력한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 사회의 중심으로 내딛고 미래 교육을 위해 나아가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iM뱅크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

1년간 인턴십 후 심사 리테일금융' 분야 모집

iM뱅크(아이엠뱅크)가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우수 금융인재 확보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024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한다.

채용은 일반금융·디지털·ICT 부문의 인재를 확보하는 채용연계형 인턴과 리테일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리테일금융' 부문의 채용으로 나눠 진행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서류접수 기간은 새달 7일까지다.

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 10월 중 서류접수를 한다.

각 채용의 지원서 접수는 은행 채용 누리집(http://imrecruiter.co.kr)를 통해 진행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 '일반금융·디지털·ICT' 3가지 부문의 모집분야로 진행된다.

'일반금융'은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구분, 채용한다.

수도권 외 권역은 최종합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재가 지원 가능하다.

'일반금융(수도권)·디지털·ICT'는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포함), 필기시험, 1차면접, 인턴십(2주),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 11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채용 절차 진행 시 AI역량평가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채용이 진행되며 각 권역별 지원자격은 채용 연계형 인턴의 일반금융 지원자격과 동일하다.

서류·기전형, 1차 면접으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 11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 후 1년간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되며 1년간의 근무 후 신청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심사를 한다. 시중은행으로 새출발의 첫 해를 맞이하는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점포 신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한다.

iM뱅크는 우수 지역인재의 적극 채용으로 청년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2024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통해 향후 iM뱅크의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갈 능력과 열정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황태용 기자



안강읍 복지단체, 취약 가정 반찬 나눔

안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총복지단'은 지난 13일, 추석을 맞아 명절 반찬 꾸러미(송편, 소고기국, 전 등)를 준비해 '사랑가득찬(饗) 반찬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사랑가득찬(饗) 반찬나눔 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과 중증 장애인 세대에 직접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결식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총총한 지지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안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매월 2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기존 대상자 외에도 명절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추가로 선정해, 위원들이 직접 명절 음식을 전달 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경주시 이통장들 앞장”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시민 역할 교육·유공자 표창 정상회의 성공개최 퍼포먼스

경주시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가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이통협의회 의회 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해 임태봉 경북이통장연합회장, 도내 시·군 이통장연합회장, 지역 이통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봉사에 앞장서 오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색소폰 연주와 한국국제통상 마이스터고 치어리딩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시민 역할 교육, 모범 이통장 유공자 표창,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중부대학교 남태석 교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통장 모두가 경주 홍보대사라는 자부

심을 가지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식후에는 가수 공연과 지역 특산물 전시로 마무리됐다.

이동건 경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오늘 하루 만큼이라도 이통장이라는 직분에서 잠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에 지역 665

명의 이통장들도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과 주민 간 교류역할을 맡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통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통장님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독서의 달’ 맞아 ‘숲 속 책인(冊人) 축제’ 개최

경주시립도서관 28일 행사 어린이도서관 연구회 책 전시

경주시립도서관이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숲 속 책인(冊人)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립도서관 앞마당과 황성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힐링의 숲 책속에서 피어나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숲 속 책인(冊人) 축제’는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연구회, 경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 독립책방이 참가해 다양한 전시와 제

현, 행사를 열 예정이다. 어린이도서관 연구회에서 선정한 여행과 모험에 관한 책 전시와 경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독립책방이 참여하는 ‘꼬꼬무 기억다방’, ‘독립책방과의 만남’도 선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054-779-8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책인 축제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책과 도서관에 친밀감을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3전 승덕전·승혜전·승신전 추계 향사 봉행

시조왕릉서 500여명 참석

경주 3전 승덕전, 승혜전, 승신전의 추계 향사가 지난 22일 일제히 봉행됐다. 3전 향사는 봄에 전(殿) 향사가, 가을에릉(陵) 향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후손들이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자 바쁜 가운데 참석해 승조덕업의 정신을 이어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혁거세 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덕전에

서는 500여 명의 후손과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왕릉에서 제향을 했다.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13대 미추왕,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30대 문무왕, 신라의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혜전에서는 미추왕릉에서 300여 명의 후손과 유림이 경건하게 제향을 지냈다. 신라 4대 석탈해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신전에서는 남심속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초헌관 직을 수행한 가운데, 석탈해왕릉에서 30여 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늘은 옛 조상의 얼과 위업을 기리는 뜻깊은 날로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향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문화행사 돛자리 콘서트 개최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 흥무공원서 주민 200여명 대상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7일 흥무공원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5회 정신건강 문화행사 돛자리 콘서트 ‘함께 떠나요, 마음소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마주하는 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지역사회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부대행사인 마음테마파크와 2부 돛자리 콘서트로 운영된다. 마음테마파크는 마음병원, 마음놀이터, 마음사진관, 마음카페 부스를 설치해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OX퀴즈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인왕동 선덕여고 주변 하수관로 정비 추진

104개 설비 설치 주요 목표 내년 5월까지 30곳 우선 추진

경주시가 인왕동 선덕여고 주변의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왕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와 문화유적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관광

자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약 2km 구간의 하수관로와 104개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8월에는 문화유적 특별보존지구 관련 협의를 마쳤다. 우선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1

차 공사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750m의 하수관로와 30곳의 배수 설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후 추가 구역에 대한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하수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Includes logos for APEC, Gyeongju, and Gyeongbuk-do.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포항 축제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개최

포항철길숲 일원서 음악회 진행  
19개 전시·체험·공연 콘텐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철길숲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여유를 제공한다. 가을밤의 감성을 더해줄 인기 가수 '우디'와 '길구봉구'가 참여하는 '힐링필링 음감회'를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스탬프투어 등 19개의 다채로운 전시·체험·공연 콘텐츠가 마련된다. 올해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예년보다 1

개월 늦추어 행사를 개최한다. 가을에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윌'과 '웰빙(Well-being)' 콘텐츠를 강조해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힐링요가와 책과 함께하는' 숲속 컴퓨터 야외 도서관, 가족과 즐기는 '철길숲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뮤지컬 갈라쇼, 춤의 세계, 쇼라이어 등 이색적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포항의 도심 중심축을 잇는 포항철길숲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생활밀착형 힐링 관광지"라며 "이번 축제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윌과 이색적인 요소가 가득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청노조, 성금 기탁

영천시는 지난 20일 영천시청노동조합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영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210명으로 구성된 영천시청노동조합은 해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모범이 되고 있다.

이동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영천시청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청송군 교통안전 홍보

청송군은 지난 20일 운전자 교통법규 의식제고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진보초등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청송군을 비롯해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어머니교통봉사대, 의용소방대, 진보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8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등교시간에 맞추어 시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과 어깨띠, 전단지, 피켓 등을 이용해 아이들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문화 확산과 교통법규 준수 등을 홍보하였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동물복지 복합센터' 준공 추진

애견 휴게실·훈련·놀이터 구성  
인프라사업비 20억 원 확보해



이를 위해 영양군은 공모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증가에 맞춰

영양군은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1년부터 반려동물 기반사업을 준비, 22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23년 '제1회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행사' 개최, 경상권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잡았다.

영양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터(298㎡)와 중소형견 놀이터(300㎡)를 구분해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25년에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센터, 군립 동물병원, 애견 휴게실, 훈련장, 놀이터 등을 동시에 갖춘 '동물복지 복합센터'를 준공해 반려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릉도오징어축제 결과 용역 평가보고회

폭염 대비·안전 관리 등 평가  
향후 개최시기 검토 등 논의

됐다. 제22회 울릉도오징어축제는 방문객 1만여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42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는 △6월~10월로 오징어축제 개최 시기 검토 △다수 프로그램은 많은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인 개막식 전으로 시간대 조정 필요 △일반 주민 참여를 유도해 전통뿔뿔퍼레이드를 전통뿔뿔경주 프로그램으로 변화 시도 필요 △오징어맨손잡기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2일 프로그램 확대 운영 △유료 먹거리부스와 특산물 무료 시식회의 장소 분리로 먹거리장터 확대 운영 및 다양한 메뉴 개발 필요 등이 있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오징어축제를 위해 애쓰신 축제위원,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내년 오징어축제는 울릉군과 각급 기관단체, 군민이 합심해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김수현 축제위원장은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반영해 보다 나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영천의 별을 담다, 거대한 목적을 품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 보고회  
행사, 내달 4~6일까지 개최



영천시는 지난 20일 최기문 시장, 시의원 및 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불거리 및 길거리, 교통 및 주차, 먹거리 등 모든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다.

내달 10월 4~6일까지 3일간 영천보현산천문과 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별을 담다, 거대한 목적을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제관 운영, AR 프로그램, 별자리 강연,

어린이 도전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재미와 학습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국내 최대 1.8m 천체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별 관측 스타파티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교 천문 동아리와 함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일몰 후에는 별자리 강연, 별이랑 아이컨택(별보기) 행사도 준비되었다.

축제 첫째 날인 4일 개막식에서는 식전공연으로 영천YMCA합창단 공연이 펼쳐지며, 200대의 드론이 펼치는 LED 라이트 쇼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 이석훈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렸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전 시체험관의 이용료 할인, 화북면과 자양면의 직거래장터 운영,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립도서관, 천사모(영천시 과학교사모임) 등 다양한 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선욱 별빛축제 추진위원장은 "별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ZOOM advertisement for Yeongyang. Features images of nature, food, and cultural sites. Text includes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d '영양 들여다보기'. Logos for Yeongyang-gun and various local organizations are present.



###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성주 성원리 민요교실 운영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선남면 성원리 주민 30명이 모여 '소소(笑소)하게 열씨구'를 운영했다.

'소소하게 열씨구' 프로그램은 흥겨운 가락과 함께 교감을 나눔으로써 정신적 건강 증진과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마을 내 자율적 인적 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뜻에서 성원리에서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성원리 박희 이장은 "자주 모이고 즐겁게 지나다 보니 마을도 더 활기차고 이웃 간의 정도 늘어나 보람된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성주, 즐거운 성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명절 후 인부 인사를 주민들에게 전했다.

도재훈 기자



### 경산, 금연아파트 지정

경산시는 지난 19일, 경산하양우미리연호포레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경산시는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하양우미리연호포레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

### 경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산시는 지난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소아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 접종했거나, 9세 이상13세 이하)와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0월 15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0월 18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접종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 “청년의 힘으로 청도만의 로컬매력 발산”

제3회 청년의 밤 행사 성료  
청년농업인 부스 10개 운영  
여러 민간단체 공동 주관해

청도군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청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년후계농연합회, 청년회의소, 4H연합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다.

"아이 LOVE 청년"이라는 부제로 김하수 청도군수, 이만희 국회의원, 전종술 청도군의회의장을 비롯 주요 내빈과 청도의 청년 뿐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해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청년의 밤' 행사는 청년의 힘으로 청도만의 로컬매력을 발산하는 문화축제로 청년농업인 홍보 부스 10개소(먹거리 8개소, 체험부스 2개소)를 포함해 '아이게임 및 청년게임', '나는 솔로 나는 부부', '릴스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와 축하공연으로 알차게 구성돼 휴일을 맞아 행사에 참여한 많은 청년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됐다.



청도군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청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오늘 청년의 날을 맞아 제3회 청년의 밤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특유의 활기찬 모

습과 청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거 같다"라며, "청도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꿈을 실

현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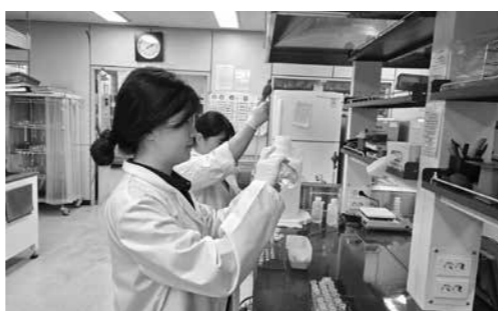
조여은 기자

## 구미도시공사,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최우수'

미국환경자원학회 주관 평가  
수질분야 6개 항목 '만족' 받아

구미도시공사 '구미하수처리장'은 미국환경자원학회에서 주관하는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미국환경자원학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에서 인정한 국제숙련도 기관으로, 세계 각



국의 정부 기관과 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능력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구미도시공사 구미하수처리장은 수

질분야 6개 항목(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에서 모두 '만족'을 받아 우수분석기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구미도시공사 이재웅 사장은 "하수처리장의 수질분석자료는 공정운영을 위해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하수도분야의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질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 고령군 청년의 날 기념 공연

청년의 삶과 함께하는 고령군의 적극적 청년정책의 일환인 제2회 고령군 청년의 날 기념 공연 - CRESENDO가 22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600여명의 청년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인 우륵홀이 조기에 전석 매진되며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공연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뮤지컬 갈라쇼 형태로 꾸며졌으며 고령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로 선정된 뮤즈타운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기획력이 합쳐져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문화 공연으로 개최되었다는 평이다.

크레센도 점점 더 강해지는 소리의 흐름을 뜻하는 음악적 기호로 청년들의 도전과 꿈을 적극 응원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고령군의 의지와 바람을 담은 네이밍이다. 이는 공연 부제인 '청년의 꿈을 더 크게'와도 부합한다.

고령군 청년 밴드 룬(RUNE)의 에너지 넘치는 사전 공연에 이어 유명 뮤지컬 배우인 민우혁, 소냐, 진정훈, 윤남준 등의 앙상블 공연과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 곡들을 청년들과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며 좋은 호응속에 마무리 되었다.

행사를 찾은 한 청년은 "청년의 삶과 함께하고자 하는 고령군의 의지와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었으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칠곡군, 군수 주재 청렴추진단 3차 회의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  
효과성있는 시책 중점 평가

칠곡군은 지난 20일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위해 구성된 군수 주재 청렴추진단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칠곡군 청렴추진단은 지난 3월, 추진단장 김재욱 칠곡군수를 중심으로 부군수 및 간부공무원이 참여해 고위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시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구성되었다.

칠곡군은 올 한해 총 3번의 청렴추진단 회의



를 통해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전략을 공유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간부공무원의 청렴 이해도를 높였다.

이런 3차 회의는 2024년에 추진한 모든 청렴시책에 대해 돌아보고, 효과성있는 시책과 보완할 점 등 내년 청렴도 평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청렴추진단을 통해 간부공무원 먼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가 정착돼 우리군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 제1회 정기회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강의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제안

경산시는 지난 20일, 영남대학교 Y-STAR 경산청년창의창작소에서 제4기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참여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강의와 분과별 개별 회의를 통해 발굴한 청년 지원 제안 사업 발표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 문제 해결 제안사업 참여하기'를 주제로 한 주민참여예산 강의는 △경산시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 △제안 사업 작성 이해하기 △제안 사업 작성하기 순으로 진행됐고, 강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제안서 작

성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단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저출생, 청년 취업난, 청년 결혼 인구 감소 등의 대응책으로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제안됐으며, 그중 가장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은 남은 개별 정기회의를 거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

경산시 미래전략과장은 "청년정책참여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과 경산시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경산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기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은 19~39세 청년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우수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김천자활센터, 사업 참여자 민간 자격증 취득

취약층 직무능력 향상 제공  
'마케팅관리사' 73명 성과

김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0~13일까지 김천지역자활센터 4층 교육장에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73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을 통해 50명의 참여자가 '마케팅관리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마케팅 교육은 배사진 강사를 초빙해, 고객의 성향별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와 마케팅적 사고방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상호 김천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마케팅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활센터는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임재훈 복지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활사업이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민간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영주시 열린시장살 운영

영주시는 지난 19일 영주시 읍·면·동 풍물단 및 영주문화원 관계자 등 15명을 시장살로 초대해 '선비도 들썩이는 흥겨운 풍물소리'라는 주제로 '365 열린시장살'을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소중한 전통문화인 풍물을 계승해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지역을 흥겹게 하는 영주시 읍·면·동 풍물단의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운흥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통의 시간에는 풍물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주시 대표 풍물단 결성, 읍면동 풍물단 지원 강화, 풍물의 저변 확대를 통한 젊은 세대의 풍물 참여 방안 등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풍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산면 풍물단 김영정 회장은 "우리 읍면동 풍물단은 영주시민 체육대회 및 지역의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해 풍물의 흥겨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며, "풍물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발전시키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문경, 가족진로체험 운영

문경시는 9월 가족진로체험으로 21일 문경시 가은읍 일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9월 가족진로체험은 "문경의 보물찾기 1탄"으로 우리 지역 문화관광 광지인 문경 가은읍 주변으로 선유동구곡, 운강이강년기념관, 임카마야박물관, 철로자전거를 문화관광해설사 체험을 통해 문경을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선유동구곡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봉사자들이 진행하는 미션으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문경 가은읍 지역의 이색간식을 준비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최근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 익숙한 운강이강년기념관은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임카마야박물관은 지역 내 이색박물관으로 새로운 즐길거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로자전거는 가족끼리 탑승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

# “가족과 함께 사는 치매 친화적 상주시 조성”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장비 체험·작품 전시회 등 인식 개선 및 예방 널리 알려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제 17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치매극복주간 행사를 실시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치매관리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1주간 진행된 치매극복 주간행사에서는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 △오오픈 day! 운영 △상주시니어클럽 참여 대상자 치매예방 교육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상주시는 치매안심센터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오픈 day!를 운영해 인지장애 장비 체험, 치매심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치매도서관 북카페 이용 등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및 체험을 통해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치매환자 조호 물품(위생 소모품)지원, △치매 치료관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상담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 보듬마을 운영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 지원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동시, 주민배심원 통해 공약사업 점검

27명 시민에게 위촉장 수여 질의응답 등 거쳐 심의·평가

안동시가 주민배심원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한다.

공약사업에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담아 시민이 원하는 시정 구현에 한발 다가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청백실에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ARS 전화를 통해 무작위 선정된 27명의 시민에

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류병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사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이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와 속의민주주의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5개 분임으로 구성을 완료한 배심원단은 추후 진행할 2-3차 회의에서 담당부서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쳐 공약사업에 심의하고 평가한다. 1-3차 회의는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위촉장을 전수한 장철웅 안동시 부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약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위대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안동을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올 5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한, 올 7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신뢰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안동시는 민선 8기 109개 공약 중 64건을 완료하고 45건은 진행 하고 있으며, 76%의 공약 이행률을 보인다. 송명주 기자



봉화군 제3차 청렴추진협의회

봉화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청렴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의 청렴 시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익명제시판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수평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을 취합해 2025년 청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공동적으로 제시된 개선사항 중 ‘수평적 소통과 실무자 협업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타운홀 미팅과 같은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MZ세대와의 소통의 장 마련, 역할 중심 업무 체계 도입 등과 같은 의견들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청렴시책을 발굴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리 조직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부 공무원부터 MZ세대까지 청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 의성 안전건설과-전남 화순, 기부금 상호기부

자발적 기부 30여 명 동참 고향사랑기부금 2년째 전달

의성군 안전건설과와 전남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금 2년째 실시했다.

지난해는 의성군 직원이 화순군을 방문하였으나 올해는 화순군 직원 10여명이 의성군을 방문해 두 지역 간 상호 협력의 뜻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기로 했다.

두 부시장은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 시절부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터라 양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기부에 직



원하기로 했다. 두 부시장은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 시절부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터라 양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기부에 직

원 3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아 2년째 참여했다. 화순군 김승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으로도 상호기부금 제도를 통한 지역 간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성군 김상형 안전건설과장은 “화순에서의 의성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역 간 상호기부금 제도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영호남의 두 지자체 간 우수한 농·특산품(답례품)도 알리고 더 많은 군민이 상호 호시에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영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홍삼간식 제공

10월 말까지 5000여 명 대상 선호 많은 홍삼젤리스트릭 선정

영주시는 지난 19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삼간식을 제공하는 ‘2024년 홍삼간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홍삼간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체력과 면역력 증진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잠재적 소비층을 확보해 지역 대표특산품인 홍삼의 소비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비 2억 8백만 원을 투입해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5천341명을 대상으로 1인당 홍삼간식을 30회 제공한다.

제공되는 홍삼간식은 학생들의 선호도조사 결과에 따라 홍삼젤리스트릭 제품으로 선정됐다.

해당 제품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홍삼과 사과

즙의 적절한 배합으로 쓴맛을 잡고 젤리형태로 먹기 간편해 학생들이 홍삼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섭취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홍삼간식은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겪어낸 학생들의 체력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홍삼간식 지원사업이 지역특산품 홍삼의 소비 확대는 물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홍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숙해져 학생들과 인산 농가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삼간식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 2022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 안동농기센터, 벼 벼멸구 피해 우려 주의보

“발생 시 즉시 신고” 당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수확기를 앞둔 벼의 벼멸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벼멸구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해충으로 특히 올해 중국 내 벼멸구 발생이 많았으며, 9월 중순까지 지속된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세대가 짧아지고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

다. 벼멸구는 수면 위 10cm 이내 벼대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벼대를 흡즙해 심한 경우 줄기와 이삭 전체가 고사하는 피해를 준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멸구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예방 및 방제에 노력해달라”며 “수확기를 앞둔 벼에 약제방제를 할 경우 농약 잔류 기간과 약제 살포량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송명주 기자

## 예천읍 행복기동대 독거가구 반려식물 전달

센터서 위기 가정 발굴

예천읍행복기동대와 예천읍행정복지센터는 이달 초부터 독거가구 38가구에 반려식물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이 높은 독거가구에

반려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주고,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대상 가구는 행복기동대와 예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했으며, 직접 방문해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 업무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